

# 금남로4가역 'AI 스마트팜' 시범가동

### 광주도시철도공사-(주)바른팜 지하 2층 300여평 공간에 조성 연중내내 딸기·새싹인삼 생산



광주 지하철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어 가능한 실내 농장에서 싱싱한 과채류가 재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 미래형 농장인 '인공지능(AI) 스마트팜'의 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엽채류와 딸기, 새싹인삼 등을 시험재배 중이다.

이번 'AI 스마트팜'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금남로4가역 지하 2층 총 300여평 공간에 조성됐다. 사업을 수행하는 바른팜 주식회사가 일평균 100Kg의 무농약 농작물을 365일 내내 생산 관리할 예정이다.

AI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식물 재배에 필요한 빛과 공기, 온습도, 양분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실내 농장 시스템이다.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고,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갖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재배도 가능하다.

금남로 5가역 AI스마트팜은 한 달여간의 시범 재배를 거쳐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될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AI 스마트팜'을 통해 도시철도 공간이 시민들의 주말 농장이자 체험·견학 공간,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AI중심도시

광주에 걸맞는 차세대 농업혁명이 지하철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희망차게 자라나는 새싹처럼, 광주도시철도역 시민 행복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지난해 대기·폐수 규정 위반 108곳 적발

### 광주시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지난해 광주에서 100개 이상 사업장이 대기과 폐수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폐수 등을 배출하는 838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조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을 고발했다.

위반 내용은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례 34건,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미 실시 7건, 배출 허용기준 초과 6건 등이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을 해치는 오염 행위에 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 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시 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어린이 과학교실

### 10~14일 식품·환경·동물교실 분야별 50명씩 선착순 모집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과학을 폭 넓게 이해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업은 ▲식품교실 '식품첨가물 알아보기' ▲환경교실 '간이정수기 만들기' ▲동물교실 '야생동물 알아보기'로 운영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 키트와 교육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5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학생 1인당 1개의 교실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교육 동영상과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코로나 19로 야외활동에 제약받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실생활 밀착형 온라인 과학교실을 제공해 과학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겠다"며 "어린이들 스스로 탐구심과 창의력을 고취시켜 지역 미래 과학도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공식 출범

### 법조·세무·건축·시민단체 등 임기 4년 전문가 7명 위촉

광주시는 "지난 7일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상임옴부즈만 1명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전직 공무원 등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광주시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농기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 17일부터 2월8일까지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2022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식량작물분야는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등 3개 사업, 원예작물분야는 스마트팜 환경 제어기술 시범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안정화 시범 등 8개 사업, 농기계분야는 탄소중립 대응 벼 재배

기술 시범(드론 방제단) 1개 사업, 농촌자원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 수익모델 시범 등 2개 사업, 도시농업분야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3개 사업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별 17일부터 2월 8일까지 농가 및 단체의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 자격, 사업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준수하세요

### 광주시 매뉴얼 제작·배포

### 담당 공무원·감리자 가이드라인

### 2월부터 접수 해체공사에 적용

광주시는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2월부터



접수하는 해체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방법 및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해체공사 착공 신고 및 현장점검 절차 ▲해체공사 감리업무 ▲가시성 설치기준 ▲해체건축물 사전 검토사항 ▲해체 장비 및 공법 종류 ▲관련규정 등이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실국소식-새소식-도시재생공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건축물 노후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이 해체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해체공사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학동4구역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광주시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배포·시행한데 이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방역 강화로 감염병 줄어도 노로바이러스 유행

### 12월 들어 검출 비중 크게 늘어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매주 광주 12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설사 환자 검체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156건

중 5건(3.2%)에 그쳤다. 그러나 12월 들어 2주차에 43건 중 8건(18.6%), 5주 차에는 43건 중 11건(25.6%), 올해 첫 주에는 23건 중 9건(39.1%)으로 비중이 커졌다. 노로바이러스는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유행이 시작돼 2월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줄어들지만 지난해에는 5월까지도 20%를 웃도는 검출률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물, 어패류, 채소류 섭취나 환자 접촉을 통해 발병한다.

김태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병과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수도, 결핵 등 상당수 감염병이 줄어들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유행 시기나 연령대가 변화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가장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